

## 安分篇

景行録云、知足可樂 務貪則憂。

⇒ 《경행록》에 이르기를, 만족함을 알면 가히 즐거울 것이요 탐욕스러움에 힘을 쓰면 곧 근심이 되느니라.

⇒ 《景行録》に伝わるのに満足することを分かれば優に楽しいことですし食欲さに力をつくせばすぐ懸念するようになる。

知足者 貧賤亦樂 不知足者 富貴亦憂。

⇒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아도 역시 즐거우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이고 신분이 귀해도 역시 근심 걱정이 많다.

⇒ 満足すること知る人は貧しくて身分が低くてもやっぱり楽しいが、満足することができない人は金持ちで身分が高くても逆に懸念心配が多い。

濫想 徒傷神 妄動 反致禍。

⇒ 분수에 넘치는 생각은 다만 정신을 상하게 할 뿐이요, 함부로 하는 행동은 오히려 재앙을 불러온다.

⇒ 身に余る考えはただ精神をいたむようにするだけであり、むやみにする行動はむしろ災いを呼んで来る。

知足常足 終身不辱 知止常止 終身不恥。

⇒ 만족할 줄을 알아 늘 만족해 한다면 일생 동안 욕됨이 없을 것이며, 그칠 때를 알아 그때에 그친다면 일생 동안 부끄러움이 없다.

⇒ 満足することが分かって常に満足出来れば一生恥らうことがなく、止む時が分かってあの時に止めたら一生の間恥ずかしさがない。

書曰、滿招損 謙受益。

⇒ 《서경》에 이르기를, 가득 차서 넘쳐 흐르면 손실을 가져오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게 된다.

⇒ 《書經》で言うのにいっぱいになって満ち溢れれば損失をもたらして謙遜ならば利益を得るようになる。

安分吟曰、安分身無辱 知機心自閑 雖居人世上 却是出 人間。

⇒ 《안분음》에 이르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됨이 없을 것이고 기틀을 잘 알면 마음은 저절로 한가하니, 비록 인간 세상에서 살더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을 벗어나게 된다.

⇒ 《安分吟》に伝わるに楽な心で無辱を守れば身に不名誉さがないだろうし、基をよく分かれば心は自然に暇だから、たとえ人間世の中で住んでも返って人間世の中を脱するようになる。

子曰、不在其位 不謀其政。

⇒공자가 말하기를,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직(職)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孔子が言うのにその地位にいないならばその職に対して論じないこと。